

일본의 도시민 농촌 정주 촉진 전략*

The Strategy for Facilitating stay in rural area and rural in-migration in Japan

황정임** · 최윤지*** · 원지윤**** · 김대규*****

Jeong Im Hwang · Yoon Ji Choi · Ji Yoon Won · Dae Kyu Kim

Abstract

Japan is very similar with Korea in aspect of decreasing population of rural areas and increasing demand of urbanites' migrating to rural areas. Therefore, government ministries of Japan including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ave performed policies for popularizing stay in rural area and rural in-migration as a new lifestyle since the early 200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 for rural repopulation in Korea though reviewing Japan's policy for urban-rural interchange. In Japan, demand of urban-rural interchange was segmented by the length and purpose of stay, and the policy was made by the way of meeting the needs of each segmented group. After two cases of policy implementation in Kochi and Fukushima prefecture were studied, a few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rural repopulation, comprehensive vision and strategy of urban-rural interchange including from rural tourism to rural in-migration and diverse programs for satisfying various kinds of demand of urban-rural interchange need to be developed.

*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e-mail: jihwang@korea.kr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e-mail: veritas96@korea.kr

**** 농촌진흥청 연구원. e-mail: lemontree22@naver.com

***** 농촌진흥청 연구원. e-mail: dkagh1982@hotmail.com

주요어(key words) : 농촌 정주(stay in rural area and rural in-migration),
도농교류(urban-rural exchange), 농촌 활성화(rural vitalization)

1. 서론

최근 농촌 정주 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정주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동원 & 박혜진(2009)의 연구에서, 도시민 응답자의 53%가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71.3%, 2008년 62.8%에 비해 다소 하락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반 이상의 도시민이 농촌 거주 의사를 보이고 있다.

도시민의 높은 농촌 정주 수요는 귀농 집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현재로서 귀농 추이를 전국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 농림수산물부의 집계에 따르면, 귀농 가구수는 2005년 1,240가구, 2007년 2,384가구에서 2009년 4,080가구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농림수산물부는 2009년 4월 ‘귀농·귀촌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07~2009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 22개 지역에서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 발표한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5개년 계획’에도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도시민의 정주 수요 창출, 수요자 대상 정보 및 교육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민의 인생 2모작 지원’ 과제를 포함시키고 있다(농림수산물부, 2009).

이처럼 농촌 지역 인구 과소화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도시민 유치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추진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민 유치 필요성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방향 및 대상 설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김정섭, 2009). 단적인 예로, 전반적인 농촌 관광·정주 수요에 대한 세분화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나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지원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나 축제 참가자들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향후 농촌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회적인 참가비 지원을 본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德野貞雄(2008)는 어떤 도시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도시주민들을 끌어들이는 활동을 추진한다면, 농업·농촌이 그저 '소비'될 뿐 지역 활성화와는 요원한 도농교류가 됨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의 범위 안에 관광에서부터 정주에 이르는 다양한 교류 형태들을 포함시킨다고 할 때, 이들의 수요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요구에 부합하는 유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 도시민 386명에 대해 조사한 윤순덕 & 박공주(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희망하는 거주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53.1%는 농촌으로 완전이주 형태를 선택하였으며, 30.1%는 주 3~4일만 농촌에서 거주하는 부분거주형태를, 15.6%는 출퇴근·부분거주형태를 선택하였다. 이는 도농교류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 형태가 다양하며, 각각에 대한 단편적, 한시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의 종합적,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농촌 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는 한편, 농촌 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內閣府, 2001) 우리와 상황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농림수산성을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에서 도시민의 농촌 관광, 체류 및 정주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여러 정부기관, 민간기관이 도농교류 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도시민 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으며, 관광과 정주를 연계선상에서 조망하여 다양한 교류 형태에 따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는 관광에서 정주에 이르는 도농교류의 여러 형태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세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일본의 도농교류 정책 사례를 통해 국내 도시민 농촌유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잠재적 정주 수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다양한 전략의 발굴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와 상황이 일면 유사한 일본의 경험에 대한 고찰이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 농촌 인구 및 도농교류 정책에 대해 개괄하고 지자체 단위에서의 몇 가지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본 후, 국내 정책에의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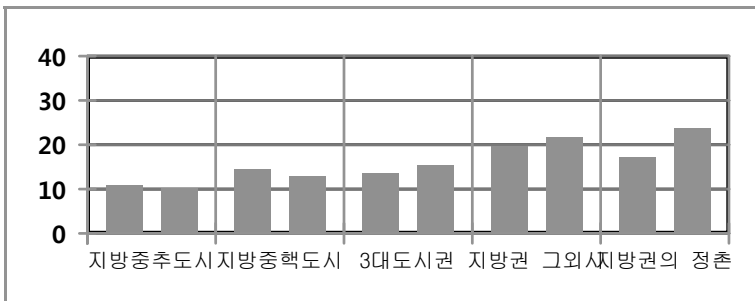
2. 일본의 농촌 인구 및 도농교류 정책 개요

2.1. 일본의 농촌 인구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2006a)은 일본 인구가 2006년 현재 약 1억 3천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되어 2050년에는 약 1억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2013년경 일본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5년까지 40% 정도 진행되고 그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감소는 2025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2050년에는 2000년 인구의 30% 이상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가 인구의 감소는 고령화나 농촌 전체 인구 감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2000년부터 2020년에 걸쳐 약 40% 감소하여 약 800만 명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가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혼주화율이 전국적으로는 약 90%, 중산간지역은 70~8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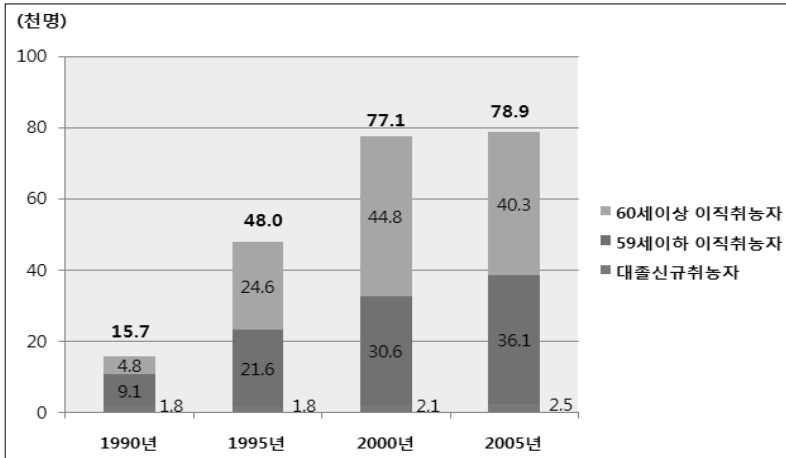
그러나 농촌생활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다. 내각부가 1996년과 2001년 실시한 이상적 거주지역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심보다 지방권 시정촌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1년 조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內閣府, 2001). 도시민 50,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 귀촌지원센터의 조사결과에서도, 농촌생활 희망 여부에 대해 40.3%가 긍정적인 응답을, 33.3%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희망자의 비율이 6.5%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空閑睦子, 2008).



자료 : 內閣府(2001)

〈그림 1〉 이상적인 거주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또한 신규취농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취농자의 90% 이상이 이직 취농자이며 과반수가 60세 이상이나, 59세 이하의 이직 취농자와 대졸 신규 취농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료 :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2006b)

〈그림 2〉 신규 취농자의 추이

2.2. 일본의 도농교류¹⁾ 정책

일본 정부는 2002년부터 7개 관련 성(농림수산성, 총무성, 문학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대류’ 정책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산어촌

1) 본고에서는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대류’를 ‘도농교류’로 지칭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논할 때 원래의 의미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대류’가 표방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표현할 때 ‘도농교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생·대류'는 1999년 제정된 신기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농촌의 진흥'에 의거 추진되는 네 가지 시책²⁾ 가운데 하나(송미령 등, 2007)로서, 농촌관광뿐만 아니라 정주(거주)·반정주 등을 포함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을 왕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이다(고미네 아키라, 2007; 송미령 등, 2009).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대류' 정책군은 ① 농산어촌에 대한 도시주민의 잠재수요의 현재화, ② 도시와 농산어촌의 중개, ③ 농산어촌의 매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송미령 등, 2007).

2003년 3월, 7개 성으로 구성된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대류' 추진팀은 전국민으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및 협력의 장, 다양한 주체의 참여, 특히 민간이 주체가 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의 취지에 찬성하는 기업, NPO, 각종 민간단체, 개인들로 구성된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 추진회의(통칭 '오라이닛뿐회의')'를 2003년 6월 출범시켰다. 오라이닛뿐회의의 주요활동은 공생·대류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단독 혹은 공동으로 각종 이벤트, 심포지엄 등 실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공유, 공생·대류 추진 전략 수립, 관련 성으로의 지원 요청 등이다.

농림수산성은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대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06년 10월 '농산어촌활성화추진본부'를 설립하였다. 또한 2007년 2월 이후부터 본 성과 지방농정국 등에 농산어촌활성화 지원장구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 5월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한 정주 및 지역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농산어촌활성화법)'을, 11월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지역의 인재 발굴·육성, 인적 네트워크 강화, 농림수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용 창출,

2) 농촌진흥에 의거한 네 가지 시책방향은 지역자원의 보전관리시책의 구축, 농촌경제의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삶의 실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공생·대류이다(송미령 등, 2007).

도시민의 두지역거주 활성화, 관계 부처의 유기적 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배민식, 2008; 이석주, 2008).

〈표 1〉은 일본의 7개 관련 성에서 실시하는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대류' 정책군에 속한 사업 가운데,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총무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명과 예산액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하드웨어적 정비사업의 성격を 지니며, 일부사업 가운데(생기발랄 바다의 아이·바닷가 만들기, 지산지소모델타운사업, 임업목재산업만들기 등)에는 수요조사, 사업추진체계 구성, 체험프로그램 추진 등 소프트웨어적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생활환경, 경관, 산·강·바다 환경, 공공시설, 정주촉진단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교부금 사업이 눈에 띄는데, 이는 채택요건보다 성과목표를 증시하고, 연도별 사업량 변경 등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재량도를 향상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송미령 등, 2007).

〈표 1〉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대류 정책군 사업(2008년, 일부)

구분	사업명	예산액(엔)
농림수산성	농산어촌활성화 프로젝트지원 교부금	30,545,509
	광역연계 공생·대류 등 대책 교부금	973,000
	농촌부흥 종합정비사업	6,148,000
	마을만들기 교부금	29,560,000
	전원공간 정비사업	957,735
	지역용수환경 정비사업	2,212,000
	중산간지역 종합정비사업	33,014,000
	지산지소 모델타운사업	321,000,000
	임업목재산업만들기 교부금	9,691,997,000
	인연의숲 정비사업	201,791,000
	삼림재생종합대책	22,811,874,000
	삼림지역재생 교부금	9,900,000,000
	어항환경 정비사업	749,000,000
	생기발랄 바다의 아이, 바닷가만들기	17,000,000

총무성	지역간교류시설 정비사업	305,892,000
	과밀지역집락재편 정비사업	190,703,000
국토교통성	집락활성화 추진사업	400,000,000
	수변교류거점 정비사업(리버투어리즘)	628,505백만
	수원(水原) 지역 발전대책 책정·추진	628,505백만
	역사적 가치를 갖춘 사방설비의 보존, 활용에 따른 지역활성화의 촉진	135,413백만
	해안·간척지의 보전 재생 창출	227,950백만
	연안지역 친수·교류거점 정비	227,950백만
	도(道)의 역(驛) 정비	2,768,860백만
	교류 터널·대교 정비사업	2,768,860백만

자료 : 都市と農山漁村共生・對流關係省連絡協議會(2008)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방법

일본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농교류 정책 가운데 도시민의 농촌 정주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 검색을 실시하였다. 먼저 도시민의 농촌 정주 촉진 관련 정책에 비교적 깊이 관여하고 있는 농림수산성, 총무성, 국토교통성의 접근 방식과 주요 전략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성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였다. 그리고 각 성이 구상하고 있는 ‘교류거주’, ‘두지역거주’ 등의 농촌생활형태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사례들을 고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 야후재팬, Livedoor 등을 활용하여 정책 및 사업 자료, 논문, 보고서 등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공생 및 대류’, ‘도농교류’, ‘교류거주’, ‘두지역거주’, ‘귀농’, ‘귀촌’, ‘농촌이주’ 등이었다. 각 성에서 발행한 여러 도농교류, 지역활성화 사례집과 지자체 단위의 사업 소개 자료, 관련 사례연구 논문 등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도시민의 농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각 성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에 가장 근접하게 도시민의 농촌 정주 촉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사례를 두 건 선별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직접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아닌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3.2. 분석내용

먼저 도농교류의 전국민적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성, 총무성, 국토교통성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농촌생활을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단위에서 세분화된 농촌생활의 수요자에 맞게 기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과 추진 방식, 결과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의 도시민 농촌 유입 촉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4. 각 성의 농촌 정주 촉진 전략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대류’ 정책군에 관여하는 7개 성 가운데 농림수산성, 총무성, 국토교통성은 각각 <표 2>와 같이 농촌생활형태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도농교류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대동소이하며, 각 성이 고유하게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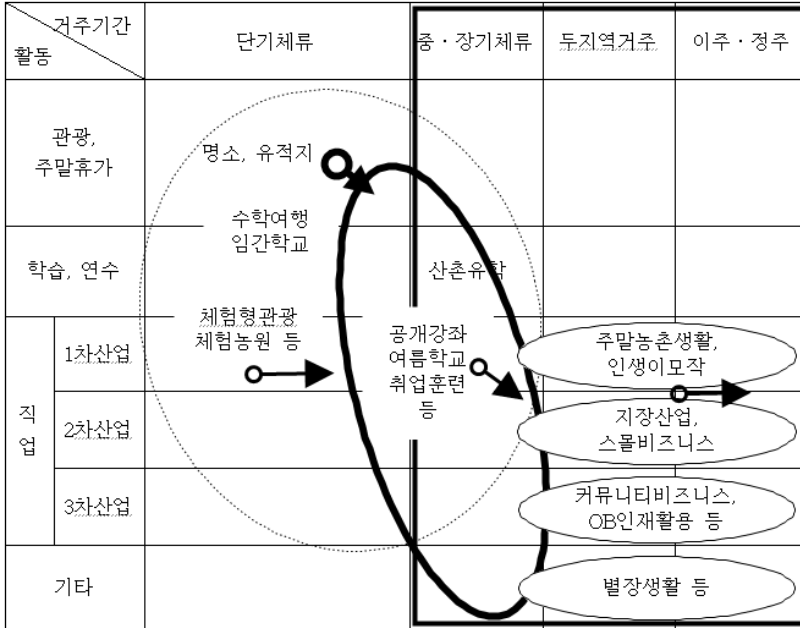
〈표 2〉 각 성이 정의한 농촌생활형태

기관	용어	의미
농림수산성	공생·대류	농어촌지역의 자연,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류형 여가활동인 그린투어리즘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의 정주, 반정주 등을 포함
총무성	교류거주	도시민이 도시와 농촌 양쪽에 체류거점을 두고 각각을 직업과 여가로 분류 사용하고, 지역민들과의 교류를 즐기며 생활하는 형태
국토교통성	두지역거주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주말과, 연중 일정기간 동안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형태로서, 농촌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연간 '1~3개월 연속' 또는 '매월 3일 이상씩 통산 1개월 이상' 등과 같이 정의를 내림. 듀얼 라이프라고도 함

자료 : 空閑睦子(2008)

空閑睦子(2008)는 농촌지역에 대한 관광 목적의 단기간 체류에서부터 직업을 갖고 정착하기까지의 다양한 농촌생활 형태를 〈표 3〉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거주기간을 단기/중·장기/두지역거주/이주·정주로, 활용 내용을 관광·주말휴가/학습·연수/1·2·3차산업종사/기타로 분류하였다. 관광이나 주말휴가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학습이나 연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직업활동을 하거나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체류가 더욱 장기화되어 농촌 정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계적,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여름학교'는 여름방학, 휴가 등의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고향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의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인생이모작'은 단카이세대가 현역에서 맡았던 능력을 활용하여 정년 후 농촌에서 재차 활약하는 것을 지칭한다. '스몰비즈니스'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을,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공익성을 내재하고 있는 사업을 가리킨다.

〈표 3〉 생활 복선화의 이미지



자료 : 空閑睦子(2008), 内閣官房 작성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이 정의한 농촌생활형태와 관련 시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총무성의 교류거주

총무성에서는 인구 과소지역의 자립과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교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농촌과 도시를 왕래하는 라이프스타일로서 ‘교류거주’를 제안하고 있다. ‘관광’과 ‘정주’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교류거주란, ‘도시 주민이 농촌과 도시에 체재 거점을 갖고

양쪽을 일과 여가 목적으로 구분, 활용하여 현지인과의 교류를 즐기면서 생활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가리킨다. 총무성은 이와 같은 도농교류 형태가 과소지역의 활성화와 자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 및 자기실현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다차원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소지역의 입장에서, 관광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역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과, 정주에 비해 고용 확보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점 등이 이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총무성에서는 교류거주의 목적, 도시와 시골의 생활 비중, 왕래 빈도 등을 고려하여 교류거주를 네 개의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4>).

<표 4> 총무성의 교류거주 분류

구분	내용	체재기간	체재장소
잠깐 전원생활 (전원관광·교류형)	- 관광, 레크레이션이나 농촌에서만 가능한 자연체험, 생활체험, 현지 주민과의 교류 등을 위해 마음에 드는 농촌을 매년 반복 방문	당일치기 1~2박	농가민박, 펜션, 여관, 호텔 등 기존 숙박시설 활용
차분하게 전원생활 (전원연수·취농형)	- 기술연수 및 업무 사정 등으로 일정 기간만 농촌에 사는 형태	수주 또는 수개월 (연수기간, 취업내용에 따라 다름)	기존 숙박시설, 연수시설, 기업운영 사원주택, 홈스테이 등
여유롭게 전원생활 (전원체재형)	- 직업, 교육 등 일상생활은 도시에서 하고, 여가시간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보냄 - 주말에 도시와 농촌을 왕래하는 유형과 피서·피한·요양과 같이 체재기간이 어느 정도 길면서 왕래빈도는 많지 않은 유형이 있음	1년 내외	단독주택(임대, 구입), 리조트맨션, 온천여관, 클라인가르텐 등
딴딴 전원생활 (전원생활형)	- 직업의 거점, 생활의 거점 모두 농촌에 두고, 용무가 있을 때 가끔 도시의 주거지(별장)를 이용	정주	주택

자료 : 總務省 自治行政局(2004)

또한 총무성은 2004년 국토교통성과 제휴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매개로 대도시권과 지방권 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교류인구의 확대를 위해 '교류인구 확대에 의한 지역활성화 대시책 모델(볼런티어 홀리데이)' 구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 매력의 발굴·창출, 지역 인재의 육성, 교류를 통한 경제적 효과 증진 등을 목표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볼런티어 홀리데이가 교류거주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볼런티어 홀리데이'란 '도시민이 농산어촌 지역에 단기 및 장기 체재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에 도움을 주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가짐으로써 관광과는 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의 의미는, 마을만들기, 지역산업지원, 복지, 교육, 문화, 환경보전, 국제협력,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활동을 가리킨다. 응모요건은 20살 이상의 남녀이며, 기간은 1주, 1개월 등을 단위로 매년 모집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나 지역의 기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숙박시설로 공공 유희시설이나 지역 민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볼런티어 홀리데이 포털사이트(<http://www.vol-h.org>)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농산어촌에서 모집 정보를 올리면, 자원봉사 희망자가 지원하는 형식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농촌 지역 차원에서 도시만큼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약점을 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 지역 활력 유지에 기여하며,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전문기술을 발휘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

〈표 5〉 볼런티어 홀리데이 활동내용

구분	활동내용
지역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	야채나 과일 등 농작물의 수확, 삼림보전 등의 환경보호 활동, 희소 동물 사육 도우미 활동, 관광이벤트 및 가이드 도우미 활동, 된장 등 지역특산품의 가공작업 등
자신의 자격이나 기술을 살린 자원봉사	육아 지원, 장애인 지원, 농산어촌 홈페이지 제작, 학교 도서관 업무, 지역특산품 레시피 개발 등

자료 : <http://www.vol-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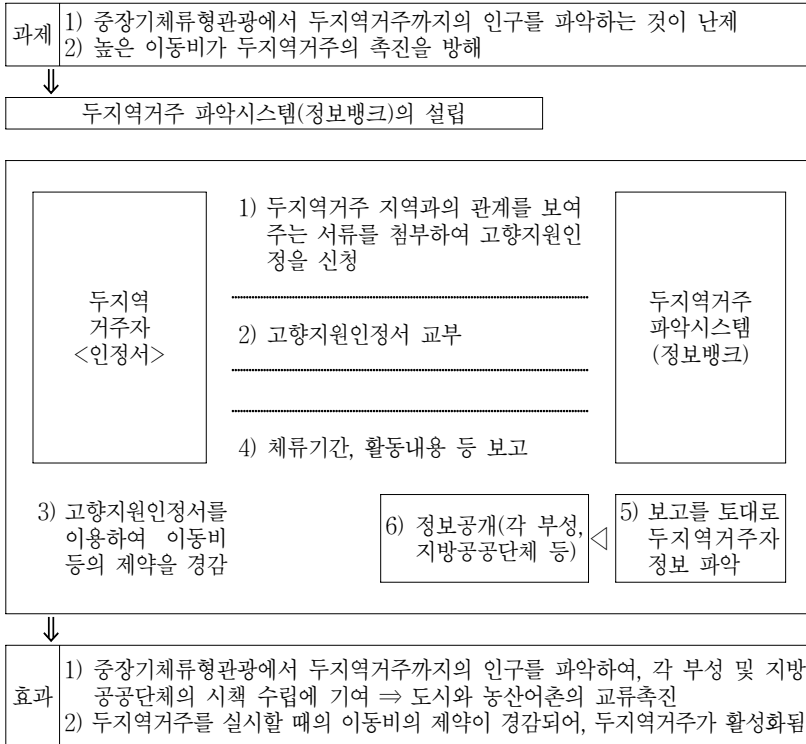
4.2. 국토교통성의 두지역거주

국토교통성은 국민 가치관의 다양화 및 정신적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 증대, 단카이세대의 대량 정년 등을 배경으로 도시 주민의 지방권 거주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두지역거주’에 대한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 정의하는 ‘두지역거주’란 도시민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동일한 농산어촌 지역에 중장기 또는 정기적·반복적으로 체재하여 해당 지역사회와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시 주거 외의 생활거점을 갖는 것’을 말한다. 도시 주민에게는 두지역거주를 통해 취미생활이나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어촌 측에는 지역 내 일정 규모의 소비 수요 및 주택수요 등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문화 활동의 새로운 인력을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두지역거주를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두지역거주 모델사업을 개발, 보급하고, 두지역거주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웹사이트, 상담창구 등)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두지역거주 수요

자들을 파악하여, 두지역거주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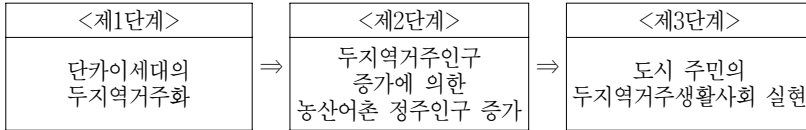
자료 : 國土交通省國土計畫局(2007)

〈그림 3〉 두지역거주 파악시스템

二地域居住研究會(2005)는 ‘정주인구’와 관광 등의 일시적·단기적으로 체재하는 ‘교류인구’, 도시민이 연간 1개월 이상의 중장기 또는 정기적·반복적으로 농산어촌의 동일 지역에 체재하는 ‘두지역거주민구’, 인터넷 주민을 일컫는 ‘정보교류인구’의 ‘네 개의 인구 집단’을 설정하고 각

집단에 대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6> 두지역거주생활사회 실현의 3단계 및 단계별 시책



단계	내용	추진주체
제 1 단계	- 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공동의 안테나숍의 설치 - 대도시에 위치한 도도부현의 안테나숍 등 내 전용코너 설치 등	NPO, 지방공공단체, 민간기업 등
	- 원스톱정보지원센터 설치 등	NPO, 지방공공단체 등
	- 안전성 평가 등 종합적인 '빈집검토조사' 실시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
	- 각종 교통비부담의 경감책 실시	민간기업 등
	- 네 개의 인구 집단의 상호연계와 상승효과를 위한 '지역계획'의 책정	지방공공단체 등
제 2 단계	- 홈시큐리티, 가사대행 등 두지역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촉진 보급	
	- 지역만들기를 위한 각종 기부금제도 등의 활용과 확충	지방공공단체 등
제 3 단계	- 새로운 휴가제도, 취업제도 등의 보급(주휴 삼일제, 겸업금지규정의 완화 등)	
	- 두지역거주 인구를 고려한 주민세과세 등, 비용부담 규정 확립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
	- 두지역거주 등의 촉진을 위한 교통, 정보통신 네트워크, 의료체제 등의 정비	국가, 지방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

자료 : 二地域居住研究會(2005)

5. 지자체 단위의 농촌 정주 촉진 추진 사례

본 장에서는 총무성이나 국토교통성이 설정하고 있는 방향을 지자체

단위에서 구현하고 사례를 소개한다. 고치현과 후쿠시마현 이즈미자키촌은 다양한 도농교류 수요를 세분화하여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였다(二地域居住研究會, 2005; 福島縣, 2007). 고치현의 사례는 현 단위의 포괄적인 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지급, 인력 운영 방식 등을, 후쿠시마현 이즈미자키촌의 사례는 촌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민과 지역민의 교류 프로그램과 전문 서포터의 역할 등을 보여준다.

5.1. 고치현의 '네 개의 인구 집단'에 대한 대처

고치현은 시코쿠 네 개 현 중 가장 넓은 지역(7,105.01km²)으로 시코쿠 총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총 인구는 2005년 현재 796,292명, 인구밀도가 112.1명/km²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중간간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치현은 지역의 자원을 활성화한 도시와의 교류와 UJI턴 등 현 내로의 정주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산업의 진흥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개의 인구 집단, 즉 정보교류인구, 교류인구 및 두지역거주인구, 정주인구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고치현은 정보교류인구에 대한 대처로서, 현이나 시정촌의 취업 및 정주 지원 제도, 시정촌의 상담창구나 주택정보, 각 시정촌 산업의 상황이나 교육, 의료시설, 도서관의 개요 등에 관한 정보들을 일원적으로 고치현 UJI턴 지원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정보를 책자로 정리하여 도시권에서의 UJI턴 페어나 현 외 사무소 등에서 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교류인구 및 두지역거주인구에 대한 대처로서 지역지원기획원을 배치하고, 시정촌 종합보조금, 연수 등을 실시하고 비전을 수립하는 등

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① 지역지원기획원 배치 : 2003년부터 지역지원기획원 50명을 선발, 현 내 25개소에 주재시켜 시정촌과 연계하여 농촌 체험 및 도시와의 교류를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인력 및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의 활동을 통해 현 내 각지에서 그린투어리즘에 임하는 주민주도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② 건강한 시정촌 종합보조금 : 지역의 주체적 활동을 추진하여 자립적인 마을만들기를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 시정촌에서 실시하는 사업지원 제도다. 주민참여 또는 주민주체의 지역만들기를 위한 어떤 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지역지원기획원이 지역활동을 지원할 때의 재정 지원이 주가 되는 것으로, 500만 엔 이내는 지역지원기획원이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지역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현 내 각지에서 그린투어리즘 등의 주민주체활동이 자립적으로 운영되어, 교류인구 확대 등의 지역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교를 체험교류장으로 정비하는 사업, 주민 집단이 체험교류를 실천하기 위한 메뉴 만들기 등,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③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동에 참가하는 집단 대상 연수 실시 : 도농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 지도방법 등에 대해 강좌를 개최하여, 교류활동에 참가하는 농가나 단체, 관계기관의 실천력 향상을 도모한다.

④ 관광진흥비전의 책정 : 현에서는 2004년 8월에 고치관광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따른 관광비전을 책정하고 있다. 현 내 7개로 나누어진 각 블록에서 지역민이 중심이 되고 시정촌 및 지역지원기획원이 함께 농산촌 체험메뉴나 체험관광사업을 발굴하는 등, 각 블록마다의 특성을 살린 것과 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 제휴하여 협력

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촌과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지역지원 기획원 등이 협력하여 지역 기반과 자원의 네트워크화, 매력있는 지역 만들기과 교류인구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정주민구에 대한 대처는 '일자리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40세 미만의 젊은 층을 겨냥한 인력 대책과 연령층 구분이 없는 인력 대책으로 구분된다.

① 젊은 층을 겨냥한 인력 대책 : 임업사업체가 젊은 신규취업자를 고용하여 실시하는 OJT연수 지원사업과 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업체험교실, 청년노동자 대상의 임업기술체험연수 등이 있다.

② 특정 연령대 구분이 없는 인력 대책 : 신규 취농희망자 지원대책으로서 현립농업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술연수, 시정촌이 실시하는 신규취농자의 확보·육성 대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규 취농자의 초기비용 경감을 위해 이용가능한 유희하우스의 정보를 고치현 농업공사에서 수집하여 희망자에게 알선하고 있다. UJI턴으로 새롭게 어업에 취업하여 자영어업자로 독립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 개시 후 2년 이내에 어선을 구입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기술습득 및 생활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치현은 UJI턴 등 현 내로의 정주 촉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직업 대책과 함께 시정촌의 협력과 빈집, 농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빈집조사 및 정보 제공, (사)고치현택지건물거래업협회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5.2. 후쿠시마현 이즈미자키촌의 교류거주민구 확대 사업

후쿠시마현은 일본 도호쿠 지방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도쿄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 또한 일본 도도부현 가운데 6번째의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기후도 농업에 적합해서 쌀을 중심으로 각종 채소, 과일, 공예작물에서 화초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작물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다.

후쿠시마현은 도시민의 정주 촉진을 위해 민간단체를 비롯한 39개 단체로 구성된 ‘후쿠시마 고향살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진흥국을 중심으로 도시민 유입을 위한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고향살이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시정촌 단위에서는 현의 시책과 연계하여 ‘두지역거주체재시설정비사업’(카와마타정), ‘농촌생활체험시설정비사업’(쇼와촌), ‘이주지원프로젝트’(이타테촌)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후쿠시마현의 중남부에 위치한 이즈미자키촌의 ‘교류거주 인구 확대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즈미자키촌은 인구 6,800명의 작은 촌이다. 촌에서는 주택단지 ‘텐노다이 뉴타운’ 판매를 통해 교류인구, 정주민구 증가를 목표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① ‘e-주민’ 모집사업 :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촌 주최의 이벤트 정보나 ‘e-주민’ 교류회 정보 등을 이메일로 제공하며, 특전으로 마을의 온천 숙박시설인 이즈미자키 컨트리빌리지 및 마을 내 골프장 등의 이용가격을 할인해 주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등록자 수는 1,700명이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파리나 서울 등 해외에서도 등록하고 있다. 2004년에는 e-주민 중 ‘텐노다이 뉴타운’을 구입하여 진짜 주민이 된 경우도 있었다. e-주민등록은 이즈미자키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② ‘와하하! 이즈미자키촌’ 교류확대사업 : e-주민들이 실제로 이즈미자키촌을 방문해 사계절 촌의 좋은 점을 느낄 수 있도록 교류회를 매년 45회 정도 개최하고 있다. 농업체험이나 소바만들기, 떡메치기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쿄 긴자의 ‘고향생활정보센

터'로 초대해 전원생활에 흥미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원생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사카에서도 e-주민 교류회와 칸사이 후쿠시마현 인회와 함께 교류회를 개최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③ 느긋한 통근 장려금 제도의 창설 : 2004년 6월에 '텐노다이 뉴타운'의 판매촉진책의 하나로 창설한 것으로, 단지로부터 철도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근수당 상당액을 최장 3년간, 최대 300만 엔까지 지급한다. 이 제도는 주택단지 구입자에게 통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전국 최초 시도와 300만 엔이라는 금액이 매스컴, 미디어에 보도되어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도쿄 긴자에 무료대행버스를 마련하여 전원생활 관심자를 대상으로 이즈미자키촌 초대회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초대회에서는 주택단지 안내뿐 아니라 촌장이 직접 만든 소바와 주민자원봉사를 통한 시골요리 등을 대접하고, 면에서 경영하는 사츠키온천에 안내하는 등, 주민과의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참가자로부터 반응이 좋아 2005년까지 총 4회 실시하여 수도권으로부터 100명 이상의 참가신청을 받았다.

④ 무료직업소개소 개설 : 2004년에 10월, '이즈미자키 무료직업소개소'를 개설하였다. 일이 보장된다면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직업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텐노다이 뉴타운' 구입 희망자 및 이즈미자키촌 이주 희망자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촌 내에 60개 이상의 기업이 입지하고 있고, 근린 시정촌에도 많은 우량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 고용 범위의 확보를 부탁하고 있다. 현지 기업이 관리능력이나 전문기술·자격을 가지는 인재를 요구하는 한편, 중앙 대기업에서는 사원의 정리해고나 조기퇴직제도의 도입이 많아 30~40대들이 전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⑤ 전문 서포터 탄생 : 이즈미자키촌에서는 농지를 빌려줄 뿐 아니라,

채소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소농사의 전문가가 흠가꾸기부터 가르친다. 또한 술 빚기, 소바 만들기, 산채 캐기 등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마을 거주자에게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전수해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다. 이주 희망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역에 익숙해지는 것인데, 이러한 고민의 해결을 위해 취미 또는 놀이 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6. 결 론

이상에서 일본의 도농교류 정책에 대해 개괄하고 지자체 단위에서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이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도농교류 정책의 면면을 짧은 지면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 활성화 전략으로서 도농교류 수요를 세분화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구상·실시하고 있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소개한 사업들의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림부의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과 그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비견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김정섭, 2009). 농촌 이주·정주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제작, 빈집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주 희망자 교육 및 지역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례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고 있는 바를 몇 가지 논하고자 한다.

첫째, 도농교류 수요의 세분화 및 이를 포괄하는 전략과 비전의 수립이 필요하다. 2000년대부터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 확산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확산이라는 포괄적인 비전하에 관광에서 정주에 이르는 도농교류의 다양한 수요를 세분화하여 각각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펼쳐야 할 때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농촌정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간별, 목적별 도농교류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 차원에서의 확산 전략을 기반으로 지방 단위에서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각종 도농교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농촌에서의 관광, 학습, 취농 혹은 전원생활 수요층을 세분화하고 수요에 맞게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목표, 방향성과 추진 방식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농촌 정주 이전 단계로서 지역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도농교류의 기회들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관광은 가족 단위, 초등학교나 교내 소모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대학생은 비롯한 청·장년, 노년층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 총무성, 국토교통성이 관여하고 있는 '볼런티어 홀리데이'는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농촌 지역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학생 자원봉사활동단 '문화배달부'를 선발, 운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같이 정주 이전 단계에서 개인의 관심사, 재능, 연령 등에 따라 학업과 연계된 체험, 자원봉사, 농업 기술 연수, 전원생활 체험 등 농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한다면 궁극적으로 농촌 이주·정주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도농교류 확산을 위한 인력의 육성 및 지속적 지원체계의 구축

이 필요하다. 고치현의 사례는 도농교류 추진을 위한 지역기획원의 활동이 주민주도활동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기획원에게 일정 금액 이하의 보조금 활용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지역요구에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응하여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이 농촌관광, 귀농·귀촌 지원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은 사업의 효과성에는 물론이고 지역내 역량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 인력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민관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을 비롯하여, 총무성, 국토교통성 등의 중앙 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기관이 관광에서 정주를 포괄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민간 조직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생활을 향유하는 도시민들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차원의 여러 기관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일본의 도농교류 정책 사례에 대한 조명을 통해 국내 농촌 이주·정주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에서 정주에 이르는 포괄적인 도농교류 비전 및 전략의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도농교류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됨을 논하였다. 일본 자료의 사용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의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기술한 것은 본고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고미네 아키라 (2007) 일본 농촌관광정책의 현황과 국제화 전략, 서울 : 삼성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9)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2009)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 미발간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5개년 계획(2010~2014).
- 배민식 (2008) 일본-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한 전략 발표, KREI 세계농업정보.
- 송미령, 박주영 (2007) 선진국 농촌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박시현, 성주인, 김광선, 권인혜 (2009)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순덕, 박공주 (2006)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농촌계획, 12(2), 37~47.
- 이석주 (2008) 일본의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 농어촌과 환경, 98.
- 空閑睦子 (2008) 田舎の探し方, 東京 : ダイアモンド社.
- 國土交通省國土計畫局 (2005) 半定住人口による多自然居住地域支援の可能性に関する調査報告書「二地域居住」の意義と その戰略的支援策の構想.
- 國土交通省國土計畫局 (2007) 二地域居住把握システムに関する論点.
-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 (2006a) 農村の社會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検討に当たって, 第1回農村における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研究會.
-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 (2006b) 農山漁村をめぐる現状について.
- 内閣府 (2001) 國土の將來象に関する世論調査(<http://www8.cao.go.jp/survey/h13/h13-kokudo>).
- 徳野貞雄 (2008) 農山村振興と都市農村交流活動の類型化, 文學部論叢, 96(總合人間學科篇), 67-79.
- 都市と農山漁村共生・對流關係省連絡協議會 (2008)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對流關連施策集.

二地域居住人口研究會 (2005)『『二地域居住』の意義とその戰略的支援策の構想』について.
福島縣 (2007) ふくしま定住・二地域居住推進アクションプログラム.
總務省自治行政局過疎對策室 (2004) 過疎地域における交流居住の促進方策に關する
調査研究.

www.soumu.go.jp 총무성 홈페이지

www.mlit.go.jp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www.maff.go.jp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www.ohrai.jp 오라이재팬 홈페이지

www.nichiiki.net 두지역구락부 홈페이지

www.sumikae-nichiikikyoku.net 두지역거주 홈페이지

www.kouryu-kyoku.net 교류거주 홈페이지

www.vol-h.org 볼런티어 홀리데이 홈페이지

논문투고일: 2010. 7. 30

1차수정일: 2010. 8. 25

2차수정일: 2010. 9. 12

게재확정일: 2010. 9. 17